

경북도서관 12월 북큐레이션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맞이)

- 슬기로운 인권 탐구생활 -

서명	청구기호	서명	청구기호
내가 꿈으로 보이니?	유 873 프랑켈내	우리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유 808.9 웅진세웅 207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유 808.9 비룡소비 284	콩콩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아 813.8 허은실이
새로운 가족	유 813.8 전이수엘 v.3	나무 도장	아 813.808 평화길평 1
콩알	아 811.8 김영미콩	돼지 이야기	아 813.8 유리,돼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유 808.9 모두가고 19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	유 839.64 마이알로
상자 세상	유 808.9 바람그천 100	매미	유 843 탠,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사전	유 808.9 별글아별 3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아 833.8 요시타보
숨바꼭질	유 813.8 김정선숨	서프러제트	아 344.8 로버츠서
엄마, 달려요	유 823.7 대만산업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는?	아 808.9 가로세초 10
오늘은 돈가스 카레라이스	아 813.8 오승민오	천장 위의 아이	유 859.7 웨그렌천



내가 꿈으로 보이니?

■ 저	자	야엘 프랑켈
■ 출 판 사		후즈갓마이테일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유 873 프랑켈내

책 소개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 네가 좋아.”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놀릴 때,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책을 보라고요.

에밀리아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에밀리아를 놀렸거든요.

자신이 없어진 에밀리아는 도망치고 싶고, 숨고만 싶어집니다.

그때 에밀리아의 단짝 친구 피터가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힘들 때 피터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 저 자	안 소 민
■ 출 판 사	비룡소
■ 발 행 년	2021
■ 청 구 기 호	유 808.9 비룡소비 284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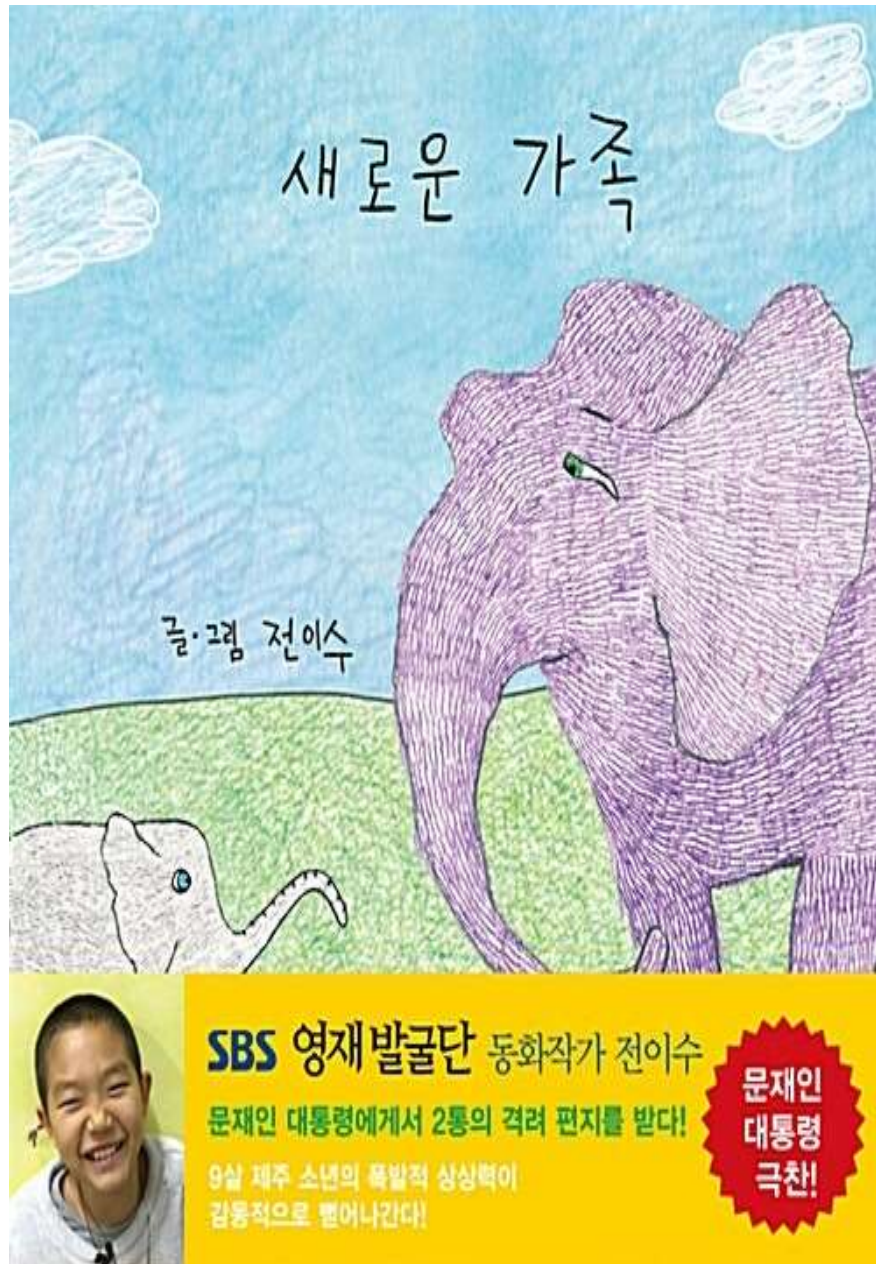
“응, 그래! 그래, 맞아!”

한 가지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과 지식, 경험한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의 주장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지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이 책은 각자가 보는 방향에 따라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가족

■ 저	자	전 이 수
■ 출	판	사
■ 발	행	년
■ 청	구	기 호

엘리

2017

유 813.8 전이수엘 v.3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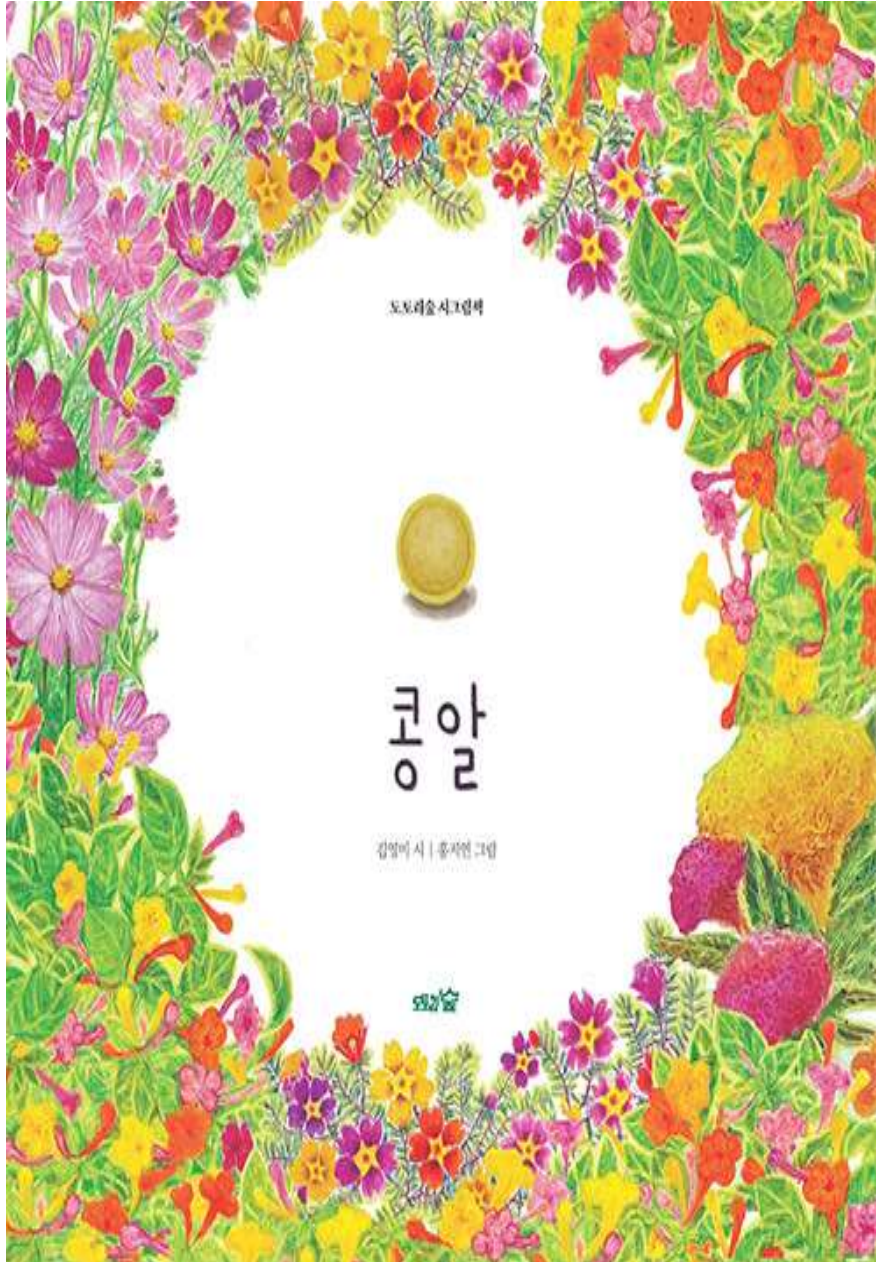
“아주 간절히 원했다. 가족을.”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과 관계 맺기입니다.

코끼리 가족은 어느 날 장애를 가진 아기 코끼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인공인 어린 코끼리는 동생이 된 아기 코끼리가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집을 뛰쳐나오게 되고, 그 후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코끼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또한 모든 코끼리는 저마다 다 다르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콩알

■ 저	자	김 영 미
■ 출	판	도토리숲
■ 발	행	2020
■ 청	구	아 811.8 김영미콩

책 소개

“아까운 콩이 떨어졌네!”

콩알을 본 적 있나요?

작고 동글동글하고 알록달록한 무늬도 없이 밋밋하기만 한 콩알. 콩 하나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데구르르 굴러갑니다.

굴러가다 멈춘 곳에 무당벌레 한 마리가 날아오지요.

그러고는 대뜸 못생겼다고 해요. 콩알은 시무룩 풀이 죽는데 할머니가 다가와 콩알을 주워 들고 갑니다. 할머니 손에 든

콩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소중하게 들고 가는

할머니 덕분에 기분이 으쓱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 저	자	알랭 세레
■ 출 판 사		고래이야기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유 808.9 모두가고 19

책 소개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이 모든 권리를 누릴 날은 언제일까요?”

이 책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성을 가질 권리, 먹고 마실 권리, 따뜻한 집에서 살 권리,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배울 수 있는 권리, 자신이 가진 조건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고,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음을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또한 여기에 담긴 내용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상자 세상

■ 저 자	윤 여 름
■ 출 판 사	천개의바람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유 808.9 바람그천 100

책 소개

“핑둥~ 택배 왔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택배에 사용된 박스와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자신의 역할을 다한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이 책도 택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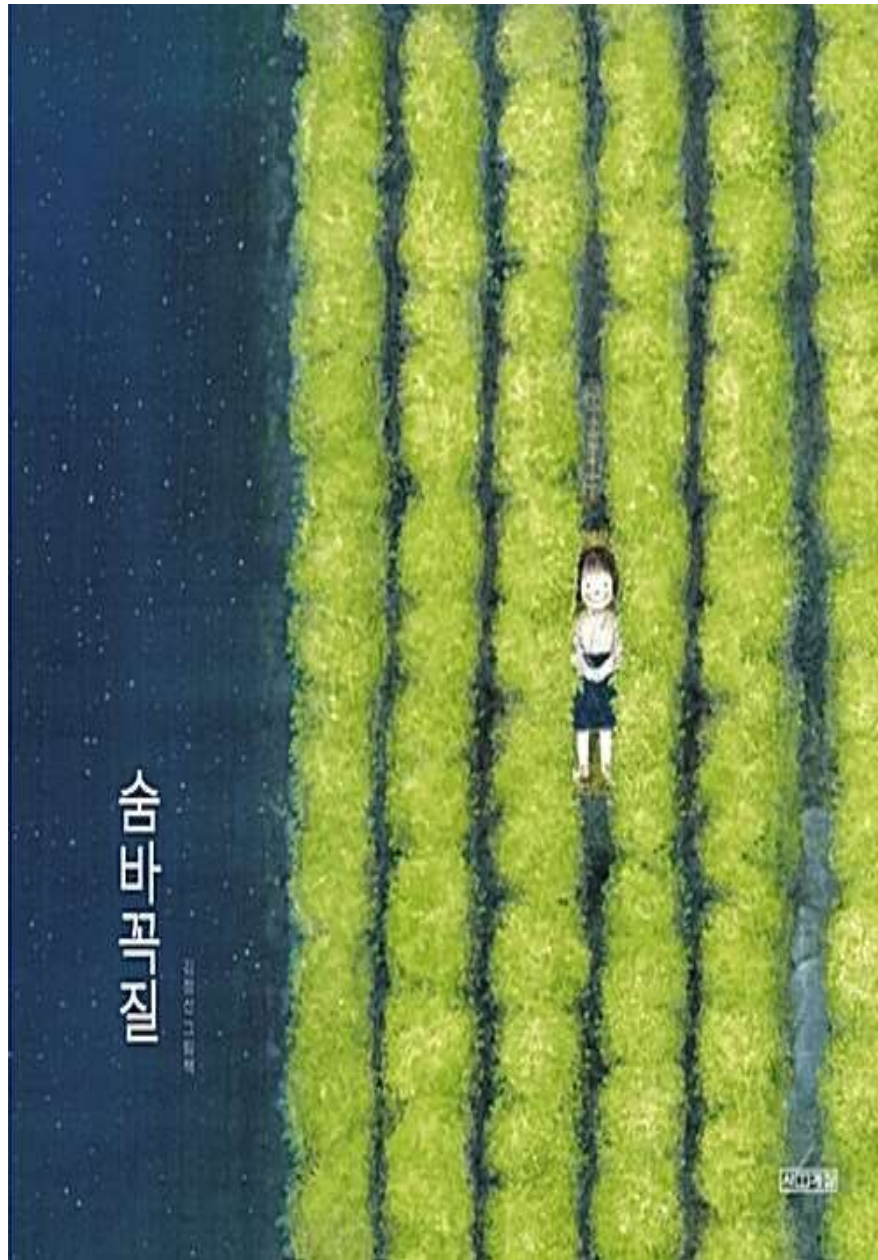
사람들이 창 밖으로 던진 택배 상자가 산을 이루고,

배가 고파진 택배 상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기

시작하지요. 이 책과 함께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 글을 쓴 국제사면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인권 침해와 정의를 연구하는 국제 인권단체예요. 인권은 공기와 같은 것이예요. 평소에는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인권을 침해당하면 그것이 매우 소중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책에는 인권과 관련된 16가지 단어가 담겨있어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 두어야 할 말들과 그림이 함께 있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기에 담긴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나와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요.



숨바꼭질

▪ 저 자	김 정 선
▪ 출 판 사	사계절
▪ 발 행 년	2018
▪ 청 구 기 호	유 813.8 김정선숨

책 소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전쟁으로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고 친구와 이별하게 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수채화풍의 담백한 그림에서는 발랄한 글과 달리 아련한 슬픔이 묻어납니다.

자전거포 집 이순득이와 양조장 집 박순득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지만 전쟁이 나고 피난을 떠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책은 피난을 떠나는 박순득이의 모습을 숨바꼭질 노래에 맞춰 보여줍니다. 아픔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순득이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엄마, 달려요

■ 저	자	대만 산업재해피해자협회		
■ 출	판	사	시금치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유 823.7 대만산업

책 소개

“엄마, 우리 다시 달려요! 밝은 곳을 향해서요.”

주인공 ‘나’의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웃음을 잃고 울기만 해요. ‘나’는 엄마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어요. 이 책은 일터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 모임인 대만 산업재해피해자협회 회원들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터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세상 모든 곳에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돈가스 카레라이스

■ 저	자	오 승 민
■ 출 판 사		한울림스페셜
■ 발 행 년		2021
■ 청 구 기 호		아 813.8 오승민오

책 소개

“엄마, 난 나쁜 애가 아니야! 다른 거야, 그치?”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안고 사는 소년 진우의 이야기입니다. 진우는 ADHD (주의결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데요, ADHD는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주의력이 부족해서 산만하게 행동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고뭉치 취급을 받고는 해요. 이 책 주인공인 진우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들이 있다고 믿으며, 그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방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난 ‘하얀곰’은 진우가 나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 저	자	에이미 찬
■ 출	판	웅진주니어
■ 발	행	2020
■ 청	구	유 808.9 웅진세웅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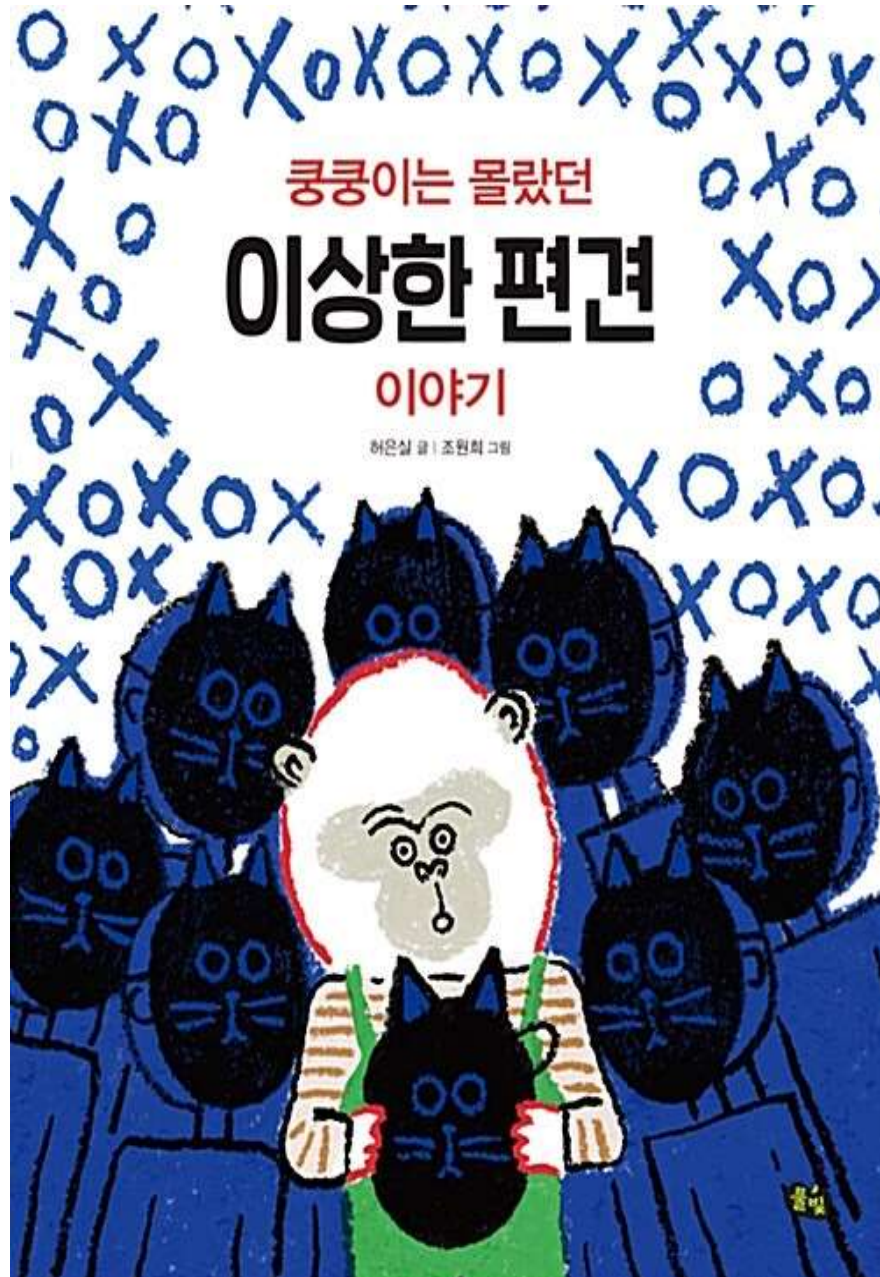
책 소개

“할머니, 100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친구들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100번째 생일, 100개의 선물, 100개의 초는 이 책의 주인공인 어린 손자에게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100번째를 맞이하는 할머니의 생일 파티가 어떻게 열리게 될지 몹시 궁금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할머니와 손자를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 저	자	허 은 실
▪ 출	판	사
▪ 발	행	년
▪ 청	구	기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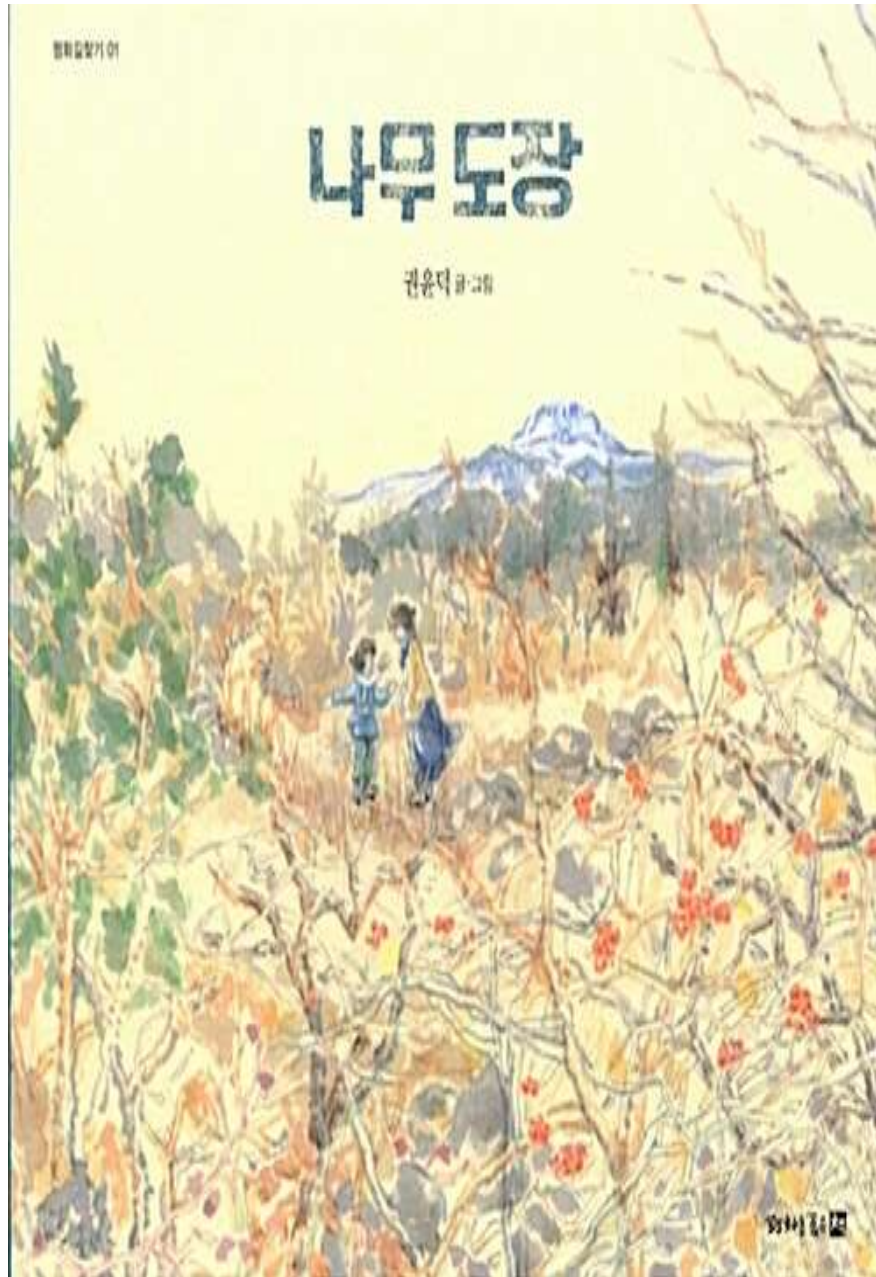
아 813.8 허은실이

책 소개

“맙소사! 제멋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안경이지 뭐야!”

쿵쿵이 짝꿍 마리가 어느 날 이상한 안경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고는 편을 갈라요.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따돌리거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곤 하지요.

쿵쿵이는 우연히 마리가 벗어둔 안경을 써보는데 그건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안경이었어요. 쿵쿵이 엄마는 마리의
이상한 안경처럼 한 가지만 보고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해요. 쿵쿵이는 엄마와의 얘기를 통해 편견은 어떤
것인지, 편견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무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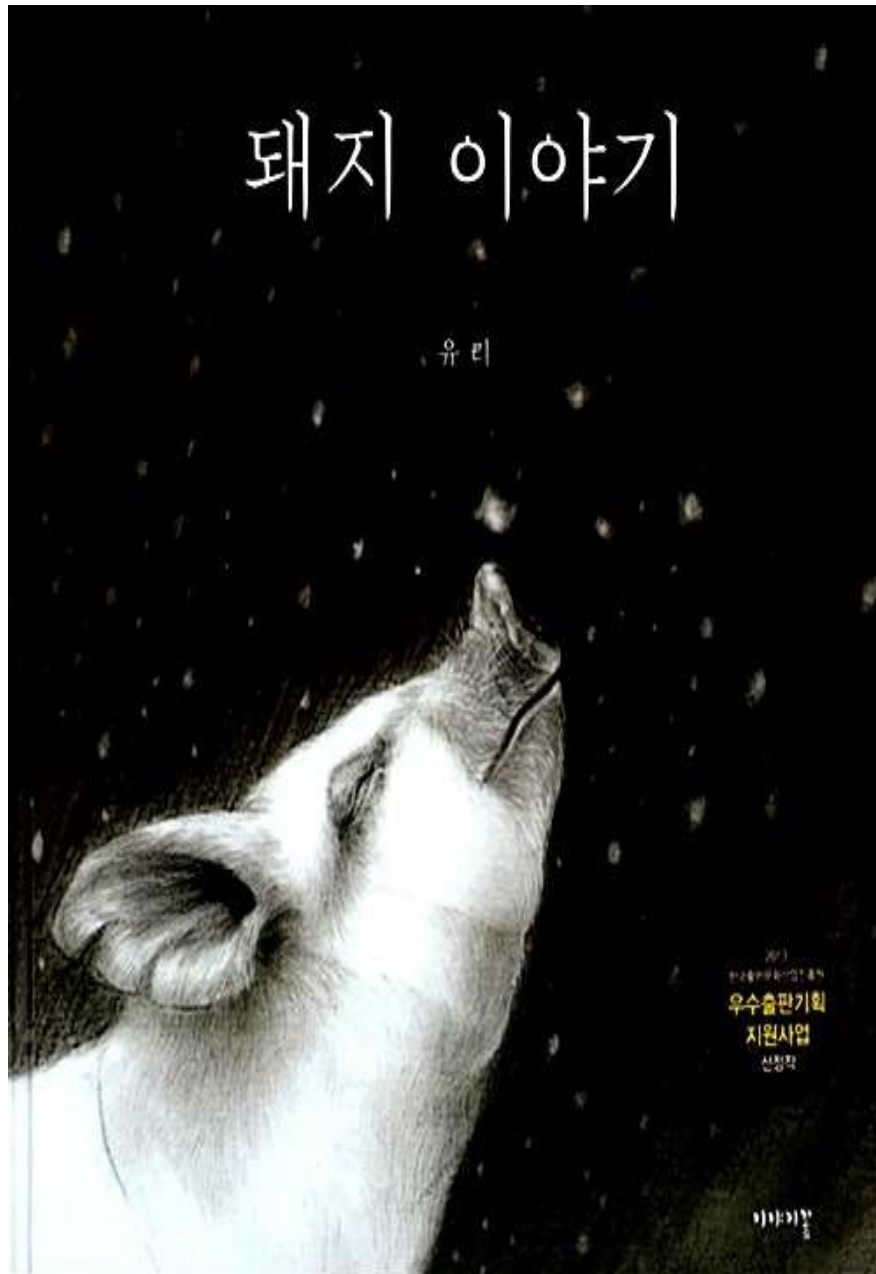
▪ 저 자	서진선
▪ 출 판 사	평화를 품은 책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아 813.808 평화길평 1

책 소개

“어머니는 시리 손에 나무 도장을 쥐여 주었다.”

제주 4.3사건 당시 가족이 모두 학살 당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한 평화와 인권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멋진 여행
장소이지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 시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이야기

▪	저	자	유 리		
▪	출	판	사	이야기꽃	
▪	발	행	년	2013	
▪	청	구	기	호	아 813.8 유리,돼

책 소개

“돼지들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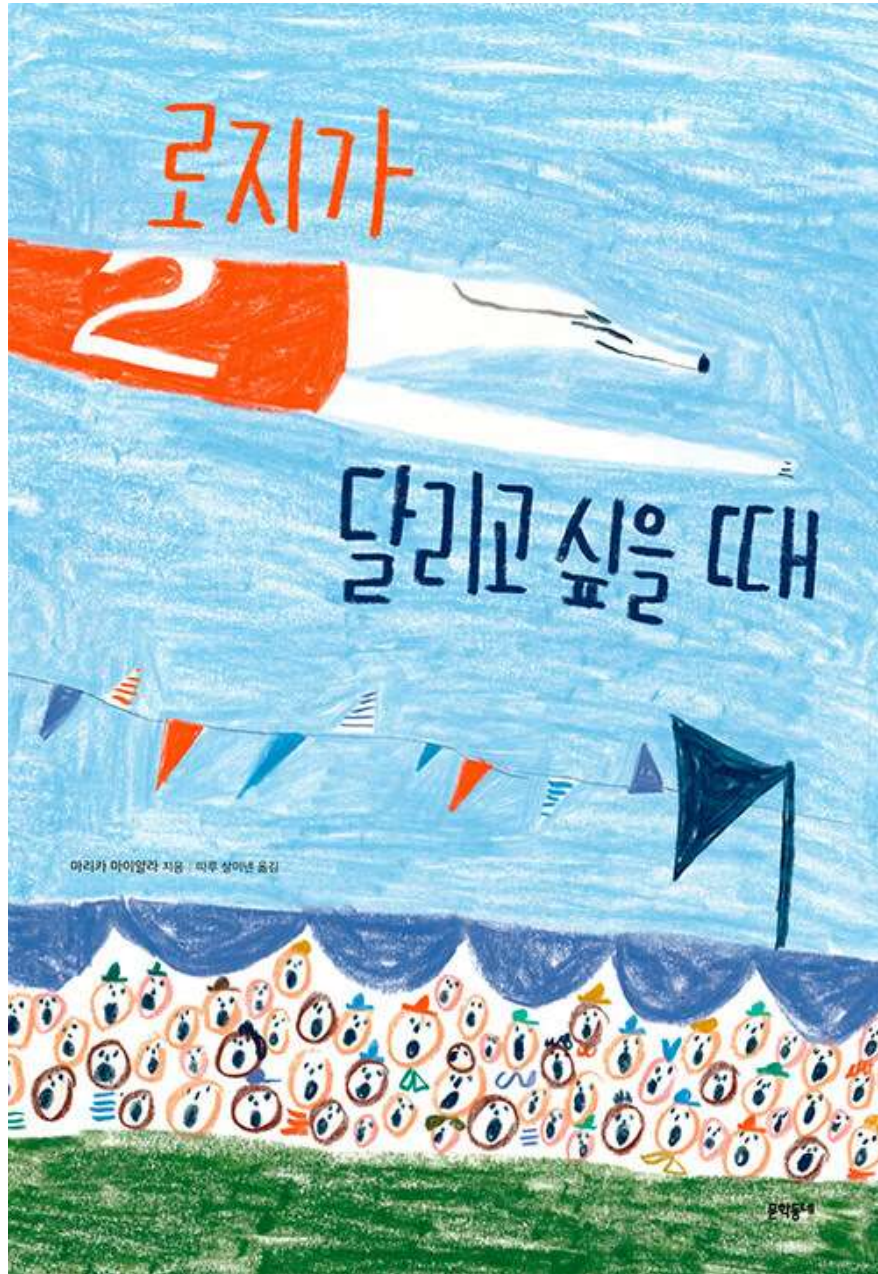
2011년 우리나라 전국을 휩쓴 구제역과 그로 인해 살처분된 돼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은 커다란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야 할까요?

이 책을 통해 구제역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공장식 축산 방식 등 동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편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모르는 척 덮고 지나쳐야 할까요?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

■ 저	자	마리카 마이알라		
■ 출	판	사	문학동네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유 839.64 마이알로

책 소개

“로지가 달립니다.”

로지는 경주견입니다.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매일 트랙을 달리지요. 경주가 끝나면 로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숲과 들판을 달리는 꿈을 꾸니다. 다음 날,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로지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로지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장 울타리를 뛰어 넘어 거리로 나갑니다. 들판을 달리고 숲을 달리고 또 달리며, 친구를 만나 그들과 함께 달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로지 스스로 달리고 싶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매미

▪ 저 자	손 탄
▪ 출 판 사	풀빛
▪ 발 행 년	2019
▪ 청 구 기 호	유 843 텐,매

책 소개

“십칠 년 일한 매미가 은퇴한다. 파티는 없다.”

책장을 펼치면 매미라는 이름표를 단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분이 보입니다. 인간들과 함께 고층빌딩에서 일하는 매미는 17년 동안 근무했음에도 인간들에게 존중 받지 못합니다. 단지 매미라는 이유로 승진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함께 쓸 수 없고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지어 은퇴할 때 파티도 없이 쓸쓸히 떠나야 합니다.

인간 무리에서 소외 당하는 매미는 어쩌면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힘없는 누군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책 소개

지구에서는 지극히 보통이라고 여기는 앞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을 가진 비행사가 어느 별에 도착하고, 비행사는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앞뒤를 볼 수 있는데 앞만 볼 수 있는 비행사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각각의 별마다 사람들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죠. 작가는 다름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서프러제트

■ 저 자	데이비드 로버츠
■ 출 판 사	대교북스주니어
■ 발 행 년	2021
■ 청 구 기 호	아 344.8 로버츠서

책 소개

“여성은 투표권을 요구한다.”

지금은 일정한 나이만 되면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요.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서프러제트 : 20세기 초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벌인 참정권 운동, 또는 그러한 운동을 벌인 여성 운동가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는 ?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는?

■ 저 자	오렌 긴즈버그
■ 출 판 사	초록개구리
■ 발 행 년	2015
■ 청 구 기 호	아 808.9 가로세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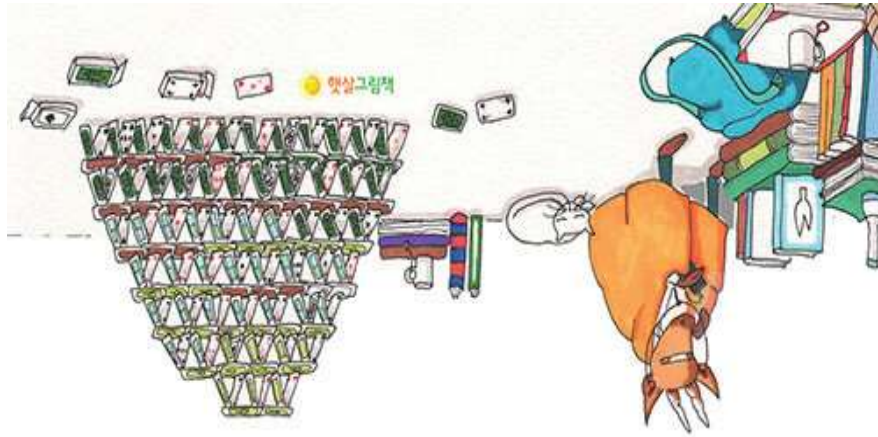
책 소개

“그래도 더 잘 살게 하려면 개발을 해야 한다.”

개발이란 무엇인지, 개발이 사람에게나 자연에게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세계에는 개발 때문에 자기들이 살던 땅과 삶이 망가진 소수 민족이 많고,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민족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개발업자들이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을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네 방식으로 행복하게 잘 살던 원주민의 삶과 터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목격하게 되지요. 과연 개발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하늘을 나는 아이



비베카 웨그렌 지음 강수진 옮김

봄별

천장 위의 아이

■ 저 자	비베카 웨그렌
■ 출 판 사	봄별
■ 발 행 년	2020
■ 청 구 기 호	유 859.7 웨그렌천

책 소개

“저건 그냥 생활 방식일 뿐이야.”

우리가 사는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는 이주민들도 있지요. 이들과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서로 살아온 삶의 방식의 차이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기도 해요.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낯선 이들이 ‘세삼’이라는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데 세삼은 참 많이 다른 아이예요. 우리는 세삼이가 낯설지만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